

# 각 종단 '한일교류' 활발

한·일불교교류는 각 종단을 중심으로 과거청산과 우호교류분야에서 양국의 민간교사협회로서의 역할을 특색 있게 하며 올해들어 두드러지게 학술·문화·국제구호사업까지 교류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미 조계종은 흥법원 설립이어서 일본 교리사 태연스님을 중심으로 교류가 무르익어 한일과거청산 운동까지 발전해 있다. 지난 80년 한일불교친선협회를 창립해 한일 합동 위령재를 개최하고 84년 한일 우호 평화의 탑을 고려사에 제막했으며 95년 7월 범종교적 사회지도층인사와 일본인들까지 대거참여하는 한일과거청산국민운동본부 결성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운산)는 나가노켄의 일본 승려, 학생, 일본단체, 민간등과 대대적인 모금운동을 벌이며 2차대전중 일본 천황의 피신처 지하본영을 구축키위한 작업중 역을하게 희생당한 7천여동포의 원혼을 천도키위한 위령탑 건립에 한창이다.

금강사를 비롯한 관계단체들은 최근 나가노시장을 접견하고 마쓰시로 부근에 위령탑 부지를 협조해 출장을 요청, 부지 협조를 확답을 받았다.

태고종은 이와함께 60년대 이후 교류가 중단된 일본정토종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태고종은 일본정토종과 일본 불교의식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교류할 방침인 것

## 조계종 매년 한일합동 위령재 개최

## 태고종 日에 전쟁희생 한국인 위령탑

## 천태종 난민구호사업등 협력 가시화

## 진각종 진언종과 학술교류 움직임

으로 알려졌다.

천태종(총무원장 윤석)은 오는 10월 1일부터 열리는 한·일공동법회에 참석하러 학술·문화교류에 불교를 타고 국제 구호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특히 행사기간에는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의 비(碑)'도 건

립할 예정이어서 아시아평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천태종은 일본천태종과 구체적인 문화·학술·인류복지사업을 벌여나갈 방침이어서 관심을 끌고있다. 문화사업으로는 양국불교문화에 기반한 음악 미술등의 공연과 전시회를 갖고, 학술사업으로는 올해 11

월에 개최할 예정인 천태불교문화 연구소를 중심으로 국제학술세미나를 통해 한일 양국 천태학자들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천태학 구현에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인류 복지사업으로는 르완다 라오스 방글라데시에 초등학교 자여주기운동 등 난민구호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양국교류는 실질적인 협력차원의 가시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 진각종(총무원장 박해)도 오는 9월 한중일대회 시점에서 일본 진언종과 공식적인 교류를 갖기로 했다.

진각종과 일본 진언종은 지난 6월 한일불교교류대회에서 논의가 거친 뒤 최근 종단교류를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오는 한·중·일서울대회에서 구체적인 교류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양종단은 종립대학인 위덕대와 일본 고야산대학의 밀교와 연구용 학술교류를 시발로 점차적으로 청소년 문화교류로 넓혀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원우 기자

"연합캠프를 통해 스스로 탐을 리고 노력하여 자신을 바로 세워 젊은 여래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불자연합 파라마타(총재 성타)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덕유산 야영장에서 실시한 '제1회 2540파라마타 연합캠프'에 전국에서 참여한 3천여명의 청소년들은 한 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선서했다.

"맑은 세상, 청순한 세상, 부처님 세상"이란 주제로 문을 연 캠프 첫날은 만남의 날이다. 서울 부산을 비롯 지역 단위 학교와 사찰에서 이번 연합캠프에 참여하기위해 마음을 조렸던 청소년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야영장에 도착한 청소년들은 합창인사를 나누고 텐트를 설치하며 금새 친숙해졌다.

이렇게 설영작업을 마친 청소년들은 대집회장에 집

선생님처럼 무섭게 보일때도 있습니다"라며 마음속의 부처님 만물 기에 시간가는 줄 모르며 찰흙속에 빠져들었다.

3천여명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열력을 담아 한 마음으로 빛어낸 삼천불탑의 공덕은 한국불교의 앞날을 밝게 하기에 충분했다.

같은 시간 다른 팀은 선재동자놀이(OL게임)에 한창이다. 4명이 한조가 되어 너침반과 지령도를 들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다. 청소년들에게 모험심과 진취력을 길러주기 위해 마련된 선재동자놀이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규정시간내에 목적지를 모두 통과하기 위해 숲을 헤쳐나가는 모습은 진지함으로 가득했다.

이밖에도 청소년들은 백련사 참배, 민속활동(해동검택견 양궁 율놀이), 생태계조사,

파라마타 게임 등을 통해 자연과 더불어 심신을 단련하고 호연지기를 키우며 협동과 우정을 나누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됐다.

## "젊은 여래의 사자 되겠다" 3천여 청소년불자 선서

결, 입체식을 시작으로 자연과 더불어 심신을 단련하고 부처님 세상만물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둘째날부터 A, B 두개조로 나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한여름의 무더위도 이렇듯하고 않고 참여하는 모습은 마치 밝고 맑은 부처님 세상을 예견하듯이 활기에 넘쳤다.

이번 연합캠프에서 가장 인기를 모았던 프로그램은 삼천불탑 만들기.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불상, 탑 등을 비롯 불구류를 찰흙으로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이다. 불교초경의 짧은 교훈과 심신증상을 위해 마련된 삼천불탑 만들기 참여한 청소년들(경기 안홍사)은 "우리 부처님은 오, 언젠가 밝게 웃으실겁니다. 어떤 때는 호랑이

파라마타게임 등을 통해 자연과 더불어 심신을 단련하고 호연지기를 키우며 협동과 우정을 나누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됐다.

또 캠프기간동안 청소년들은 신문반을 운영해 하루의 일과를 정리해보는 한편 알림판을 통해 각 분과의 소식과 프로그램을 전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본부에서도 학생들간의 건전한 교류를 위해 우정반(우체국)을 비롯 방승반(회화) 반 등 다양한 동아리, 청소년들의 보람된 캠프를 위한 특별행사도 마련됐다.

신문반 운영 일과 정리 알림판에 게시



## "올림픽 불자선수 활약했다"

27개 메달중 금5개 포함 11개 획득



지난 4일 폐막된 제26회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종합 10위를 차지하는데

현역한 공을 세운 이들이 바로 태릉선수촌 한마음불자회의 불자선수들이다.

이런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따낸 금은 동 총 메달 27개 가운데 11개가 불자선수들이 일구어낸 것. 특히 우리나라가 따낸 금메달 7개 중 5개가 스포츠정신을 불심으로 실천한 장한 우리불자 선수들의 것이다.

한국의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3회 연속 개인메달획득의 대기록을 세우며 의의의 한국인인 애청까지 얻은 레슬링 자유형 74kg급 박장순선수는 지난 93년 캐나다 세계 선수권대회 우승 직후 훈련과정에서 얻은 오른목 무릎부상 후유증으로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에서 예선 탈락한 뒤 공식 은퇴했다. 그러나 박선수는 1년간의 공백을 딛고 다시 태릉선수촌에 입촌, 부상부상이 의 몸을 정신력으로 버텨내며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올림픽 폐막직전 가장 마지막에 열린 올림픽의 꽃 마라톤에서 한국의 자존심을 지켜준 이봉주 선수의 은메달 또한 금 못지 않은 소중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이봉주 선수의 은메달 뒤에는 아침저녁으로 부처님전에 기원을 올린 어머니 공옥희씨와 아버지 이해구씨

의 사람이 있었다. 또 남자체조 팀에서 '쿠에르보'라는 신기술을 발휘하며 우리나라 체조선수 최초로 올림픽 메달을 안겨준 여흥철 선수도 자랑스런 불자선수의 한 사람이다.

이밖에 칠전팔기의 신공 여자양궁 2관왕 김경옥(관려기사 5년), 여자양궁의 막내동생 윤혜영, 남자양궁의 김보람 등 불자선수들의 활약은 그 어느 올림픽보다 돋보였다.

이번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불자선수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금메달=조민선(여자자유도, 66kg), 전기영(남자자유도, 86kg), 김경옥(여자양궁, 개인, 단체), 윤혜영(여자양궁 단체), 심권호(레슬링, 48kg)

▲은메달=김민수(남자자유도, 95kg), 박장순(레슬링, 74kg), 김보람(남자양궁 단체), 여흥철(남자체조), 이봉주(마라톤)

▲동메달=정성숙(여자자유도, 61kg)

이은자 기자

## 태고종 사회복지법인 연내 설립

태고종 사회복지(부장 법성)는 종단내 사회복지시설을 일원화하기로 하고 총무원 각 시도교구 총무원과 전국사찰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오는 17일까지 종단내의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를 파악한 뒤 체계적이고 원활한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키위해 올해내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 태고종 73회 임시총회

태고종(총무원장 혜초)은 오는 9월 30일부터 4일까지 총무원 설립전에서 제73회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신임부장단 임명동의건 △9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분담금 조정의 건 △종단 개혁안 등이 다뤄진다.

## 천태종 전국 배구대회

천태종 중앙청년회(회장 이문수)는 오는 18일 단양 영춘중학교

## 태고종 사회복지법인 연내 설립

에서 제 23회 상임원각대조사기 전국배구대회를 개최한다.

이날행사는 전국 30개 천태종 청년회 배구팀이 참석할 예정이며 2천여 사부대중,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축제행사로 치러질 예정이다.

상임 원각 대조사기 전국배구대회는 23년의 전통과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 진각종 청소년수련대회

진각종 전국청년회(회장 박희택)는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종조탄생지인 금강원을 중심으로 울릉도 일대에서 제 23회 진각청년회 수련회를 개최한다.

'진각 50년과 진각청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련회는 진각종 5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진각종 1백년의 문명을 꿈꾸는 세대의 책무감으로 지역교화 활성화에 힘입는 청년회로 거듭나는 계기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21개 종단이 조계종을 배제한 대한불교종단총회회를 발족했다고 밝혔으나 불과 며칠도 안 돼 진흥회 회원종단들이 애초 의지를 축소하고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버려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찾잔속의 태풍'에 그칠까 걱정된다.

그러나 어쨌든 종단합의 회장종단인 조계종우주로 운영돼 왔다는 분위기의 확대 조계종이외의종단에 소외감의 골이 깊게 패어있음이 노출됐다. 대표적 행사인 부처님오신날 제등행사가 종단합 주최임에도 진행상 조계종단 행사인지 분간하기 어렵다는 소리와함께 조직 구성에 있어서도 조계종단 이외의 스님들의 예우문제가 매년 되풀이돼 여타종단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었다. 또 대종단인 조계종을 중심으로 이골 어져야 한다는 대외로 종단합

중의 종단들의 주장에 대해 조계종은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기 보다는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일관해 큰 종단다운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는 불교초경의 짧은 교훈과 심신증상을 위해 마련된 삼천불탑 만들기 참여한 청소년들(경기 안홍사)은 "우리 부처님은 오, 언젠가 밝게 웃으실겁니다. 어떤 때는 호랑이

## '찾잔속의 태풍'

구성에서 당연 직 회장 상근 부회장등 조계종 이사스님이 5명에 이르러 조계종 스님 일색이라는 불만을 털어놓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번분위기와 달리 조계종의 종단들의 주장에 대해 조계종은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기 보다는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일관해 큰 종단다운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는 불교초경의 짧은 교훈과 심신증상을 위해 마련된 삼천불탑 만들기 참여한 청소년들(경기 안홍사)은 "우리 부처님은 오, 언젠가 밝게 웃으실겁니다. 어떤 때는 호랑이

것이다. 각 종단의 지도자스님들이 '친목'을 표방했지만 공식단체를 출범하면서 질차도 갖추지 않는 것은 한국불교지도자급 모임답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아름다운 환공탑에는 없다'는 옛말이 있다. 어쨌든 이번일을 계기로 종단합은 달라져야할 시점에 왔다고 본다. 그래서 종단합의를 누구나 신뢰하고 대표할 수 있는 종단협의체로 발전시키길 바란다.

변화하는 시대정신속에서 각 종단들은 이번의 종단총회 발족을 계기로 협력과 동반자라는 새로운 관계설정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다. 이제 세상은 모두 다 도(道)를 놓아 버렸다!

THE LAST WORD

# 부처님의 유언

공파 스님 역해

부처님 자비의 극치! 말세의 중생들을 위해 남기신 금쪽 같은 최후의 유언!

아! 말세의 중생들을 위해 끝까지 간곡하게 당부하신 이 유언은 부처님 자비의 극치를 나타낸 것이요, 그러므로 제자가 된 사람들은 아니 두 발로 땅을 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 최후의 말씀을 뼈에 새겨두고 간에 기록해야 할 것이다.

신구 4000원 / 4000원

전국 유명서점 장년 판매중!

## 아주 소중한 비밀을 그대에게 전하니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라!

# 법구경 1, 2

오소 리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법구경》은 나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나는 허상의 옷을 모두 벗어던지고 그들 받아들이었다! 값진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들!

그러나 그 방법을 몰라 애매무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깨달음의 스승 리즈니쉬가 《법구경》 강의를 시작했다

신구 4000원 / 4000원

# 금강경

오소 리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버려처럼 단번에 자르는 지혜의 완성

2천5백 년 전 붓다가 돌렸던 지리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금강경》은 다이아몬드이다. 세상의 모든 책 중에서 가장 소중한 보배이다! 삶에 찌든 우리에게 생명의 광도 같은 활력과 생기를 부여하는 유익한 인생의 지침서!

신구 4000원 / 4000원

출판원고 보내주시면 길 기우어 보겠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 그리고 환생은 계속되고 있다!

환생의 체험 사례

# 나는 아흔여덟 번 환생했다

조 파서 지음 / 손민규 옮김

"어쨌든 그대는 다시 태어날 것이다. 환생의 법칙은 우리에게 《영원》을 선물한다."

한때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받아들이기 힘든 때가 있었다.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었다. 환생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금에도 환생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느낌이 더 많은 체험을 갈망하게 하고 이 갈망은 우리의 잠재력이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우리를 계속 지상에 돌아오게 만든다

더 깊고 과학적인 이해 가능하도록 환생의 다양한 믿음들에 대해 집중적이고 권위적인 비교연구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나는 조 파서의 이 책을 소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 달리아 라파 -

신구 2800원 / 4000원